

# 2009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

## - 고전장편소설 연구의 문제

정길수\*

1. 머리말
2. 장편소설 연구의 성과
3. 여타 분야 연구의 성과
4. 맺음말

### 1. 머리말

2009년 학술지에 발표된 소설 연구논문은 현재 100여 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수 또한 60인 이상으로 집계된다.<sup>1)</sup> 100여 편의 논문은 대개 단일 작품 혹은 두세 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장편과 단편, 한문과 한글로 분야를 나누어 볼 때 그 중 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한글 장편소설(대하소설)이다. 그 다음은 한문 단편소설, 한글 단편소설, 한문 장편소설의 순이다. 작품론의 범주를 넘어서는 연구로는 출판유통에 관한 연구, 문화콘텐츠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사적 맥락에서의 접근 등이 주목할 만하다.

양적으로 결코 적지 않은 연구논문이 제출되었고, 한 편 한 편이 개별 작품 혹은 고전소설사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의미 있는 성과들이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고전소설 연구에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되물을 때 분명한 답변을 제출하기는 어렵다. 뭔가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느낌이다.

---

\*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소설 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사에서 필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논문도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2009년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최근의 고전소설 연구에 대해 반성하고 돌파구를 모색하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2009년 고전소설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글 장편소설에 무게 중심을 두어 장단점을 살피고, 여타 분야의 연구는 필자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 일부 연구 성과만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주된 논의 대상은 학술지 게재 논문이고, 저서와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아울러 살피기로 한다). 모든 연구를 대상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장점을 부각하는 연구사 정리도 의미 있지만, 현재 소설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집중해서 현 단계 소설 연구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일이 긴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 현시점에서는 쟁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개별 연구에 대해서도 그 의의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채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드러내는 쪽에 초점을 두었다. 이런 점들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

## 2. 장편소설 연구의 성과

현재 고전소설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글 장편소설은 대개 ‘가문소설’이라 불려도 좋은 大河小說(大長篇小說)에 해당한다. 최근 가문소설 연구의 큰 흐름은 가문소설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쪽과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쪽으로 양분되어 있고, 특히 요 몇 년 사이에는 가문소설에 담긴 작자의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작품에 내포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혜란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 반복 서술을 중심으로」에서 <소현성록>에서 표방하고 있는 ‘유교적 이상주의’와 ‘가문의식’의 이면에 강한 ‘가족이기주의’와 ‘세속주의’가 놓여 있음을 밝혔다. 주인공이 벼슬을 받는 태도의 차이, 가문의 이름으로 용인되는 폭력성, 검소함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부의 축적, 딸과 며느리의 가문 내 위상

차이 등이 그 근거다. 이들 내용은 주된 서사 밖에서 ‘단순 언급 수준의 반복 서술’ 속에서 확인된다고 했다. 대체로 타당한 지적이지만(다만 빈민 구제에 관한 언급이 작품 안에 없다는 지적 등은 다소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다), 가문의 이름으로 용인되는 폭력성이나 딸과 며느리의 가문 내 위상 차이 등의 요소가 ‘가족이기주의’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특히 딸과 며느리의 위상 차이(양부인이 자신의 뒤를 이을 소씨 가문의 관리자로 며느리가 아닌 딸을 지목하는 점과 관련한)가 ‘자기 가문 중심의 세속적 욕망’으로만 해석되어도 좋을지 등에 대한 고려와 보충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선희의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의 딸 형상화와 의미 - <소현성록> 연작을 중심으로」 역시 <소현성록>의 딸들에 주목하여 작품 이면에 놓인 가문이기주의와 가부장제-남성중심주의를 살폈다. 정선희는 또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 시각」에서 <조씨삼대록>(<현몽쌍룡기>의 후편)의 악녀 3인방(장씨, 광씨, 이씨)에 주목하여 악녀 형상의 특징을 살폈다. 이를 통해 악녀들의 전형적인 면모가 종합되고 서술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문제는 악녀들의 전형성(표리부동한 행동, 욕정 추구)과 이상적인 여성상(인내, 온화한 덕성)에 대한 결론이 낮설지 않다는 것이다.

김문희의 국문장편소설의 중층적 서술의식 연구」는 대하소설에 투영된 이질적인 서술의식을 살핀 연구이다. 여기서 ‘중층적 서술의식’이란 작품에 투영된 이질적인 생각, 곧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서술자의 의식과 그에 반하는 의식을 말한다. 주된 서사의 흐름 속에서는 영웅호걸 내지 도덕군자라는 이상적인 형상이 강조되지만 일상을 다루는 삽화처럼 부차적인 서사에서는 애처가 혹은 공처가의 면모 등이 드러나면서 유교적 지배담론의 균열을 보여준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대상으로 삼은 <현몽쌍룡기> 연작과 <소현성록>, <유씨삼대록>뿐 아니라 그에 앞서는 <구운몽>이나 <창선감의록>에서도 비슷한 면모를 찾을 수 있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조망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시광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대하소설의 ‘여성수난담’과 그에 투영된 서술의식을 추적했다. 대상 작품은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유씨삼대록>,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 등이다. 시몬느 베이유의 구분에 따라 여성 수난을 ‘육체적인 수난’, ‘정신적인 수난’, ‘사회적인 수난’으로 나누었다. 앞의 두 가지 수난과 중복되는 것이지만 ‘사회적인 수난’을 별도로 독립시킨 점이 특이하다. ‘사회적인 수난’은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에 는 소외를 받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추방당하는 것 등이 있다”고 정의된다. 그런데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수난’의 예로 勸嬖이 언급될 뿐이고, 전반적으로 다른 작품의 경우에도 ‘사회적인 수난’의 예가 되는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sup>2)</sup> 오히려 그 전형적인 예는 <소현성록>의 소교영처럼 수절하지 않고 유배지에서 사통했다는 이유로 가문 구성원 전체의 승인 아래 죽임을 당하는 여성일 터인데, 소교영은 긍정적인 주동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여성 수난을 셋으로 나누어 본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여성수난담의 검토 과정에서도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우선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에서는 <유효공선행록>의 작자가 여성 수난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가부장의 문제’를 부각시켰다고 했는데, 작자는 이 극단적인 수난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갈등의 해결 과정에 흥미를 가지게끔 서사를 축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여성 수난에 대한 작자 인식이 진지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애초의 극단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제기된 가부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석연치 않다. <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의 여성수난담 비교를 통해 후편인 <유씨삼대록>이 전편의 문제의식을 잃고 통속화한 것으로 본 것처럼, 대하소설 일반의 비교를 통해 연구 결과가 종합되기를 기대한다.

허순우의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는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의 연작 관계가 일반적인 삼대록 소설의 연작 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일반적인 삼대록 연작의 경우 전편에서 가문의 내적 완성을 이루고

2) “대하소설에서 사회적 수난은 대개 출거나 유배의 형태로 전개된다. 그런데 <유씨삼대록>에서는 그러한 형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장시광,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논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251면)

후편에서 가문 외적 창달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전편인 <현몽쌍룡기>가 다양한 상하 갈등을 통해 가문의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서사의 무게 중심을 ‘가문’에 둔 점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지만, <조씨삼대록>에서 복수의 부부 갈등(‘수평적 갈등’)을 서사의 중심부에 배치하되 이들 부부의 갈등이 가문의 문제로 확대되지 않게 하여 서사의 무게 중심을 ‘개인’에 둔 점이 특별하다고 보았다. 전편에 비해 후편에서 이념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현실적으로 드러난 점도 특징이라고 했다. 연작 가문소설은 전편보다 후편에서 부부 갈등이 두드러진 경우가 많은 듯한데, <현몽쌍룡기>-<조씨삼대록> 연작이 여타의 연작 가문소설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문소설의 주요 연작과의 관련 아래 후속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포 김만중의 소설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었다. 유병환은 「<구운몽>의 구조와 소설미학적 실상」에서 <구운몽>의 ‘내포액자’를 분석했다. ‘내포액자’ 항목 하나하나는 흥미롭지만, 순서가 뒤섞여 있고 항목 설정이 자의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강욱의 <구운몽>에서 구름의 의미와 주제」는 ‘구름’에 내포된 여러 갈래의 의미망을 세밀하게 고찰한 결과이다. 이강욱은 또 <구운몽>의 幻夢 경험과 주제」에서 <구운몽>의 환몽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능엄경』 등 불경과의 대비를 통해 <구운몽>의 주제에 접근했다. 그 결과 <구운몽>의 주제는 다음의 제목 풀이로 제시된다: “아홉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아홉 개의 구름이 꿈과 같은 것임을 성찰하라.” ‘구운몽’은 ‘아홉 개의 구름은 꿈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해석이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참과 거짓’, ‘꿈과 현실’의 분별을 인정하지 않는 육관대사의 입장에서 볼 때 ‘꿈’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한편 <구운몽>에서 속임수가 거듭 이용된 것은 “등장인물과 독자로 하여금 가상이나 환상을 경험하게 하면서도 그 경험의 주체가 과연 실재인가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했는데, 가춘운의 ‘귀신 놀음’에 대해서는 타당한 해석일 수 있으나, 속임수의 주체가 적경홍, 양소유, 심요연일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정병헌은 「<사씨남정기>의 인물 형상과 지향」에서 사정옥을 제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 인물, 교체란을 이익사회적 인간형으로서 신분사회의 모순 속에서 희생된 인물, 유연수를 제도 안에서 안주할 뿐 제도의 허구성이 드러났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는, 신분제도의 허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간형으로 보았다. 교체란을 악녀가 아닌 제도의 희생물로 조명한 점이 특이하다. 지연숙의 「<사씨남정기> 비김춘택 계열 연구」는 <남정기> 연구의 텍스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된다. <남정기>의 한문 이본을 ‘김춘택 한역 계열본’과 ‘非 - 김춘택 한역 계열본’의 둘로 나누고, 양자의 차이가 비교 분석되었다. 김춘택 한역본을 중심에 둔 기존 이래종의 연구를 크게 보완하면서 일부 문제점을 바로잡았고, 기존에 한문본과 국문본의 차이로 지적되었던 문제가 실은 ‘김춘택 한역본’과 ‘非 - 김춘택 한역 계열본’의 차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그 과정에서 <남정기> 원작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던 기존 이본의 위상이 전혀 달라진바, <남정기> 원작과 관련되는 앞으로의 연구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원수는 「<사씨남정기>의 창작 동기 및 시기 논란」에서 <남정기>의 창작 동기를 “장희빈 사건과 연관된 정치적 의도”에서 찾는 견해를 비판하고, “축첩과 관련한 일반 부녀자의 감화라는 일반적 동기”에서 찾는 견해를 긍정하고 있다. 창작 시기 또한 ‘장희빈 사건’과 무관하게 1689년 이후 남해 유배기가 아니라 <구운몽> 창작(1687년경 선천 유배기) 이전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남정기>의 창작을 장희빈 사건과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첩이 정실의 자리에 오르는 <남정기>의 기본 이슈가 17세 후반 사대부가 혹은 여향의 일반 부녀자들 사이에서 사회 문제로 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대를 잇기 위하여 첩을 들인다는 설정까지 놓고 보면(이 점은 의외로 <남정기> 논쟁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듯하다), 필자는 <남정기>의 설정이 왕가를 배경으로 해야만 본연의 문제 제기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창작시기는 인현왕후의 폐위 이후 혹은 그보다 약간 앞서 장희빈 세력의 대두 이후로 추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작자와 창작시기, <구운몽> · <창선감의록>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남정기>

연구는 여전히 쟁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유광수는 <옥련몽>·<옥루몽>의 ‘창작-개작’ 양상과 의미 - 주요 남성 인물의 개작 양상을 중심으로』에서 <옥련몽>에서 <옥루몽>으로 개작되면서 양창곡이 이상화되어가는 과정을 고찰했다. 아울러 동초, 마달, 노균, 동홍 등의 경우에도 인물의 내적 근거가 확보되고 전반적으로 개연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개작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유광수는 “사실적 속성에 이상적 특성이 부가”되면서 “강화된 이상성은 대중들의 통속적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여 설득적이고 매력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상화의 과정에서 생동감이 약화된 점도 아울러 지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노균과 같은 악인에게서도 최소한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평면성을 탈피했다는 시각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 점에서 시종일관 의연하고 신념에 가득차 있으며 유가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인물 양창곡이 충분히 입체성을 띤 인물인지, 19세기 소설사에서 문제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인물인지 고민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대하소설의 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논의도 꽤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2009년에도 함께 토론해 볼 만한 문제가 여럿 제기되었다. 이지하는 「대하소설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전망」에서 대하소설의 문화콘텐츠화 가능성을 짚어 보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영역 중에서 오락(‘엔터테인먼트’) 이상으로 정보(‘인포메이션’)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인문콘텐츠’의 지향점을 고민하면서 “문화콘텐츠를 과도하게 ‘재화’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현재 추세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창권은 「대하소설 <완월회맹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서 <완월회맹연>을 모델로 삼아 구체적인 문화콘텐츠화 방안을 모색했다. 티브이 드라마화를 목표로 작품의 등장인물과 기본 서사를 포함하는 시놉시스를 제시하면서 각색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대하소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콘텐츠를 이룰 것인지 궁금하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본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콘텐츠 일반론은 물론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된 바 있고,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론도 논의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전히 ‘대하소설의

문화콘텐츠화'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중국의 '홍루몽 테마파크' 같은 것이나 '정보'와 관련된 박물관 내지 전시관 같은 것이라면 쉽게 이해되지만, '오락' 영역의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대하소설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지금까지 가능성이 풍부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실현된 것은 거의 없는 듯한데, 이는 문화콘텐츠로 만들기 어려운 점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흔히 거론되는 영화나 티브이 드라마만 하더라도 대하소설이 가진 긴 분량 정도가 난점으로 지적될 뿐, 오늘날의 대중에게 전달되어도 좋은 미덕이 무엇인지, 대중에게 사랑받기 위해 변용하거나 재가공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인 듯하다. 그 점에서 정창권이 <완월회맹연>을 대상으로 좀 더 실제적인 논의를 시도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 실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다. 정창권은 <완월회맹연>과 오늘날의 인기 연속극(현대의 가족드라마)이 “옆집에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고, <완월회맹연>이 다루는 “평범한 가족들의 일상생활” 역시 오늘날의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완월회맹연>은 등장인물이 많고 조연들의 주변 이야기가 풍부한바, 등장인물을 단순화하고 사건 중심으로 각색하는 한편 “일부다처와 같이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고 (...) 우연성이나 환상성 등도 가급적 삭제”하는 가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하소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진전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치밀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영화나 드라마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신선한 발상과 종합적인 완성도가 아닐까. 그렇게 볼 때 대하소설의 스토리를 단순화하고 오늘날의 실정에 맞지 않는 몇 가지 설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오늘날 대중의 눈높이에 비추어 '교양' 혹은 '오락'을 충족시킬 수 있는 드라마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하소설의 문화콘텐츠화 분야에서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3. 여타 분야 연구의 성과

지연숙은 <박씨전> 주류 이본의 두 계열 연구에서 <박씨전> 22종의 이본을 크게 A, B 두 계열로 나누고, 기존 연구와는 달리 각 계열의 선본을 박순호 47장본과 박순호 50장본으로 보았다. 사족 부녀의 관심과 의식을 간직하고 전고에 익숙한 A계열이 원작에 가깝고, B계열은 하층의 취향에 맞게 개작된 후대의 변이 형태로 추정했는데, 추론 과정이 치밀해서 향후 <박씨전> 연구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녀는 신자료 국문본 <강도몽유록>의 이본적 특성과 의미에서 <강도몽유록>의 한글번역본을 새로 발굴 소개했다. <강도몽유록> 국문본은 현재까지 알려진 6종의 한문본 중 동국대본 -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 계열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한 것으로 추정했고, 필사 시기는 19세기로 추정했다. 그동안 한문본과 한글본이 모두 전하는 몽유록 작품으로는 <원생몽유록>, <안빙몽유록>, <금화사몽유록> 등이 꼽혔는데, 이번에 <강도몽유록> 한글본이 발견됨으로써 몽유록 향유 양상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폭이 넓어졌다. 한문본 간의 차이에 대한 언급에서 원작이 가진 문제의식(인조반정 공신 세력에 대한 저항의식)이 시간을 지나면서 퇴색해 가는 현상을 지적한 대목도 의미 있다.

전이정의 여성영웅소설연구 - 서사 단위와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는 여성영웅소설의 삽화 구성을 ‘결핍’과 ‘욕망’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살폈다. 여성영웅소설의 기본 요소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갖춘 <설저전>을 초기의 기본형으로 설정하고, 삽화의 변형, 구성 원리의 변이에 주목하여 여성영웅소설의 변천 과정을 추적한 점이 흥미로운데, 개별 작품의 창작 시기 추정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충분히 시사하는 바 있다고 생각한다.

오윤선은 「한국고전서사와 추리소설」에서 <정수경전>, <홍연전>, <김씨열행록>이 추리소설의 맹아를 가진 작품이라고 보았다. 이들 고전소설 작품에서 단편적이지만 추리 과정이 보인다는 점, 문제 해결의 역할을 여성이 맡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오윤선은 추리소설을 근대의 산물로 보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존재했던 그 순간부터 추리 소설의 기원은 시작되었다”고 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서구에서 추리소설을 근대의 산물로 보는 이유는 이성의 힘으로 논리적 추론에 의해 수수께끼를 풀어간다는 데 있다. <정수경전> 등의 경우에는 破字 해석, 혹은 黃狗 세 마리를 그린 그림에서 ‘황구삼’이라는 범인의 이름을 알아내는 식이어서 논리적 추론과는 무관한 단순 수수께끼 풀이에 불과하다고 본다. 고전소설에서 추리소설의 맹아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추리소설 일반에 대한 접근 과정에서는 다소 과도한 해석이 놓여 있다는 생각이다.

장효현은 김태준의 『조선소설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살폈다. 선행 연구에서도 몇 차례 조명된 바 있는 문제이지만, 장효현의 연구는 『조선소설사』의 장단점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힌 점이 특징적이다. 이 연구를 통해 『조선소설사』의 구체적인 오류가 여럿 지적되었지만, 오류를 통해 다시 보더라도 『조선소설사』의 성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대하소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정적으로 판단한 대목 등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당시의 자료로 추정할 수 있는 최고치를 보여 주었다고 판단된다. ‘소설에 대한 장르론적 인식이 결여된 점’을 장효현은 한계로 지적했지만 “소설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된 것”으로 본 김태준의 견해가 필자로서는 오히려 타견으로 생각된다. 필자의 의문점은 맺음말의 다음 구절에 있다: “『조선소설사』는 기본적으로 실증적 태도에 입각한 저술이다. 그러나 한편 사회주의 문학관이 드러나 있는 저술이기도 하다. 사실을 나열적으로 제시 하면서 그 정리를 피하는 점에서 실증적 저작이라 하겠지만, 도처에서 자신의 계급적 관점을 드러내 적극적 가치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조선소설사』의 이러한 이질성과 균열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 의미를 추적하는 것도 새로운 연구 과제가 아닐까 한다.

이민희의 『마지막 서적중개상 송신용 연구』(보고서, 2009)는 일제강점기의 ‘冊商’ 宋申容(1884~1962)의 생애를 전면적으로 조명한 저서이다. 전체 3부로 구성된 책에서 제1부에서 생애를 다루고, 제2부에 송신용이 교주·해제한 자료를 집성하여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제3부에는 송신용 교주본

<여용국전> 연구 논문 및 宋憲奭의 소설 연구 논문을 실었다. <강도몽유록> · <괴생명몽록> 등의 발굴자로 알려져 왔던 송신용의 생애와 학술 업적, 일제강점기 서적 매매의 실상을 소상히 드러낸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생각된다. 다만 연구대상에 대한 애착이 다소 지나쳐 송신용의 공과를 공정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고, 제3부에 수록된 송헌석 연구 논문이 책의 전체적 체재에 어긋난다는 평가도 있었다.<sup>3)</sup> 필자 역시 이에 대체로 동감한다. 또한 서적 매매 목록 중 古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낮은 점도 자료 자체에 대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 4. 맺음말

한 편 한 편의 연구논문 모두 소중하다. 연구자의 노고가 깃든 한 편의 논문을 통해 작품 이해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러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우리 고전소설사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그러나 최근의 고전소설 연구를 되돌아볼 때 필자뿐 아니라 아마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뭔가 막막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마다 한두 사람이 파악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논문이 제출되고 있고, 연구자 개개인은 대개 성실한 태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성과를 정리해 보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연구자마다 다른 주제에 주목하여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만, 답변은 대동소이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논문은 대체로 읽기 어렵고(불필요하게 어려운 말, 고어 표기 그대로의 인용, 실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요약어 등), 용어는 명실상부하지 않으며, 실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비추어 제목은 포장되어 있다(이를테면 고전소설 분야의 논문에서 ‘젠더’라는 용어를 써야 할 이유는 이해되지만,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굳이 써야 할 이유는 대개 없는 듯하다).

소설사에서 비교적 덜 주목받는 단편소설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 최호석, 「지식의 생성과 확산에 대한 사례 연구」(『민족문화사연구』 41, 민족문화사학회, 2009) 참조.

좀 더 두드러진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른바 ‘논문을 위한 논문’, ‘동어반복의 논문’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장편소설 연구에서는 특정 시각에서 작품을 재구성(‘재해석’이 아니라 ‘재배열’에 가까운)하는 데서 멈추는 일이 많다. 본격적으로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자리에서 논문이 끝나 버리는 것이다. 작품의 서사 단락을 제시하는 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과거의 연구자들이 나름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단락을 나누었다면, 한동안은 대강의 줄거리를 편의적으로 분절했고, 최근에는 특정 인물, 특정 사건, 특정 주제로 논의를 한정해서 역시 편의적으로 작품을 재배열하는 듯하다. 중장기 계획 아래 소설사의 큰 문제, 혹은 작품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연구를 찾기는 어렵고, 소규모의 미세한 문제에 매달리는 연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어떤 작품 분석에 원용한 방법론을 이번에는 다른 작품에, 다음에는 또 다른 작품에 적용하여 비슷한 결론에 이르는 연구도 적지 않고, 논의 수준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작품을 대상으로 삼아 작품성을 논하고는 결국 작품의 한계를 지적하며 마무리되는 연구도 발견된다. 작품과의, 선행연구와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되는 연구 성과를 찾기로 참으로 어렵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연구자 개개인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지만, 제도적 측면의 문제도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학진 체제’에 ‘예속’된 이래 연구자와 그들의 모임인 학회는 철저히 한국연구재단의 평가체계 안에 놓여 있다. 현행 체계에서는 짧은 논문을 해마다 대량생산해야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전작 저서나 번역서는 물론이요, 다수의 참여자를 필요로 하는 기초 분야 공동 연구는 노력에 비해 매우 박한 평가를 받는다. 결국 연구자는 120매 안팎의 논문을 끊임없이 써야 한다. 그러니 호흡이 긴 연구는 박사학위논문 이후 다시 시도하기 어렵다. 또 해마다 논문을 여러 편 써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아래 연구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방대한 자료를 섭렵해서 몇 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연구는 기대하기 힘들다. 하나의 연구로 종합되어야 할 내용도 분량상의 이유 때문에, 혹은 개인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여러 편으로 분절된다. 긴 작품의 경우 짧은 논문 안에서 치밀한 작품 분석을 보여주기도 어렵고, 다른 작품과의 밀도 높은 비교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연구자 개인의 책임의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 작품과의 긴장, 선행연구와의 긴장 속에서 던지는 새로운 질문을 생각해 하지 않을까. 개개인이 저마다의 작은 문제와 씨름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예전 『한국문학사의 쟁점』과 같은 책처럼 지금 시점에서 ‘한국고전소설사의 쟁점’을 정리하며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렵지만 도전해야 할 공동의 목표를 재설정된 자리에서 개개인이 각자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까.

## 참고문헌

## 1. 장편소설

-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중층적 서술의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 \_\_\_\_\_, 「장편가문소설의 可讀性 연구 - 삼대륙계 장편가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 박영희, 「〈쌍렬옥소삼봉〉의 중국 역사 수용」, 『새국어교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 소인호, 「〈취미삼선록〉 이본 연구」,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9.
- 유광수, 「〈옥련몽〉·〈옥루몽〉의 ‘창작-개작’ 양상과 의미-주요 남성 인물의 개작 양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 유병환, 「〈구운몽〉의 구조와 소설미학적 실상」,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 이강욱, 「구운몽과 불교 경전을 활용하는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DTKB Program) 구안」, 『문학치료연구』 12,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 \_\_\_\_\_, 「〈구운몽〉에서 구름의 의미와 주제」, 『국어국문학』 151, 국어국문학회, 2009.
- \_\_\_\_\_, 「〈구운몽〉의 幻夢 경험과 주제」,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 이대형, 「19세기 장편소설 『하진양문록』의 대중적 변모」, 『민족문학사연구』 39, 민족문학사학회, 2009.
- 이수희,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구운몽〉, 〈소현성록〉,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 이원수, 「〈사씨남정기〉의 창작 동기 및 시기 논란」, 『배달말』 44, 배달말학회, 2009.
- 이지영, 「〈낙천등운〉의 텍스트 특징과 형성 배경에 대한 고찰」,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 이지하, 「대하소설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전망」,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2009.
- 임치균, 「〈태원지〉 연구」,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 장시광,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논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 \_\_\_\_\_,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4, 배달말학회, 2009.
- \_\_\_\_\_, 「<현몽쌍룡기> 연작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학회, 2009.
- \_\_\_\_\_,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학회, 2009.
- 장효현, 「『玉樹記』의 작품세계와 沈能淑의 세계관-仙家 志向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 44, 한국한문학회, 2009.
- 정길수, 「『구운몽』 原典 재론」, 『민족문화연구』 5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 정병현, 「<사씨남정기>의 인물 형상과 지향」, 『한국언어문학』 70, 한국언어학회, 2009.
-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학회, 2009.
- \_\_\_\_\_,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의 딸 형상화와 의미-<소현성록> 연작을 중심으로」, 『배달말』 45, 배달말학회, 2009.
- \_\_\_\_\_,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喪禮 서술의 변모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 정창권, 「대하소설 <완월회맹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어문논집』 59, 민족어문학회, 2009.
- 조광국,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전해>의 응서대립담 고찰」,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반복 서술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 \_\_\_\_\_,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醜貌 연구-<유씨삼대록>의 순씨와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학회, 2009.
- 지연숙, 「<사씨남정기> 비김춘택 계열 연구」,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 \_\_\_\_\_, 「<박씨전> 주류 이본의 두 계열 연구」, 『어문논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 차충환, 「유이양문목의 인물과 공간 연구」, 『국어국문학』 151, 국어국문학회, 2009.

- 최기숙, 「여성 인물의 정체성 구현 방식을 통해 본 젠더 수사의 경계와 여성 독자의 취향 - 서울지역 세책본 <하진양문록>의 서사와 수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최윤희, 「필사본 <쌍열옥소록>과 활자본 <삼생기연>의 특성과 변모 양상」, 『우리문학연구』 26, 우리문학회, 2009.
- 한길연,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의 여주인공의 탈속적 자기공간 추구에 대한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 \_\_\_\_\_,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 2. 한문 단편소설

- 강상순, 「나말여초의 전기에 형상화된 사랑의 형식과 그 역사적 의미」,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9.
- 권혁래, 「<최척전>의 문학지리학적 해석과 소설교육」, 『새국어교육』 81,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 김경미, 「서울의 유교적 공간 해체와 섹슈얼리티의 공간화 - 19세기 소설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 김미선, 「<운영전>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내면의식 고찰」, 『우리문학연구』 27, 우리문학회, 2009.
- 김영미,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놀이와 욕망의 역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3, 2009.
- 김정녀, 「신자료 국문본 <강도몽유록>의 이본적 특성과 의미」,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 민영대, 「趙緯韓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 <최척전>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0, 한국언어문학회, 2009.
- 박상석, 「한문소설 <鍾玉傳>의 개작, 활판본소설 <美人計> 연구」,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 박일용, 「<玉匣夜話> '서두 이야기'의 서사 전략과 문제의식」, 『고전문학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박혜순, 「俠傳의 초기적 형태로서의 '蔣生傳' 연구」, 『어문논집』 60, 민족어문학회, 2009.
- 서은아, 「<주생전>의 애정삼각관계와 문학치료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서은아, 「<운영전>의 인간관계 분석과 문학치료에의 적용」, 『문학치료연구』 11,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 소인호, 「저승체험담의 서사문학적 전개」, 『우리문학연구』 27, 우리문학회, 2009.
- 신재홍, 「<김현감호>와 <조신>의 비극적 삶과 치료적 글쓰기」, 『문학치료연구』 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 \_\_\_\_\_, 「<최고운전>의 신라사 인식」, 『고전문학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안창수, 「<용궁부연록>의 작품세계와 의미」, 『한국문학논총』 53, 한국문학회, 2009.
- 엄태식, 「<운영전>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 이정원, 「신작 구소설의 근대성 - <채봉감별곡> · <청년회심곡> · <부용상사곡>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 전성운, 「<龍宮赴宴錄>의 연회와 서사 전개」, 『어문연구』 60, 어문연구학회, 2009.
- \_\_\_\_\_, 「<醉遊浮碧亭記>의 공간성과 서사 전개」, 『우리어문연구』 60, 우리어문학회, 2009.
- 정규식, 「<周生傳>의 인물 연구-상호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 캐릭터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 정규식, 「<何生奇遇傳>과 육체의 서사적 재현」, 『한국문학논총』 53, 한국문학회, 2009.
- 조현설, 「17세기 전기·몽유록에 나타난 타자 연대와 서로주체성의 의미」,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 최원오, 「17세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越境의 양상과 超國의 공간의 출현」,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 최윤희, 「<홍백화전>에 나타난 인물 관계와 우정」,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9.
- 최천집, 「<수성지>에 나타난 증용적 세계관」, 『어문논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 한의승, 「<韓趙忠孝錄>연구 - 자료 소개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31, 대동한문학회, 2009.

## 3. 한글 단편소설

- 곽정식, 「〈한씨보응록〉의 형성 과정과 소설사적 의의」,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2009.
- \_\_\_\_\_, 「〈신숙주부인전〉의 역사 수용 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새국어교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 \_\_\_\_\_, 「〈元斗杓實記〉의 창작 방법과 소설사적 의의」, 『한국문학논총』 52, 한국문학회, 2009.
- \_\_\_\_\_, 「〈雲水誌〉의 중국 역사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53, 한국문학회, 2009.
- 권순근, 「고전소설의 동화적 변모-〈홍부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 김도환, 「〈장백전〉의 〈규엄객전〉 수용과 소설사적 의미」,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 김명신, 「〈호구전〉과 〈박씨전〉의 여성영웅 연구」, 『중국소설논총』 29, 한국중국소설학회, 2009.
- 김용기, 「出生譚을 통한 〈張伯傳〉과 〈柳文成傳〉의 내용 비교 연구」, 『어문연구』 1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 \_\_\_\_\_, 「왕조교체형 영웅소설의 왕조교체 방식 연구」, 『국어국문학』 153, 국어국문학회, 2009.
- 김재웅, 「〈정해경전〉의 구조적 특징과 여성 향유층의 욕망」, 『어문논총』 50,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 김진영, 「〈陳大方傳〉의 倫理敘事的 특성과 한계」, 『한국언어문학』 70, 한국언어문학회, 2009.
- \_\_\_\_\_, 「金牛太子傳承의 유형과 神話素의 서사적 의미」, 『어문연구』 62, 어문연구학회, 2009.
- 김진영·차충환, 「〈오선기봉〉의 형성과정과 의의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62, 어문연구학회, 2009.
- 서은아, 「〈장화홍련전〉의 가족갈등과 문학치료적 활용」, 『국어교육』 129, 2009.
- 서혜은, 「경관 〈임장군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 심혜경, 「〈삼생록〉에 나타나는 애정문제와 남녀교환 환생의 의미」,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 오윤선, 「한국고전서사와 추리소설」, 『어문논집』 60, 민족어문학회, 2009.

- 윤정안, 「〈김인항전〉의 의미 형상화 방식」,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학회, 2009.
- 이병직, 「〈이현경전〉의 이본 연구」, 『한국문학논총』 53, 한국문학회, 2009.
- 이문규, 「허균·박태원·정비석 <홍길동전〉의 비교 연구」, 『국어교육』 128, 2009.
- 임성래, 「『별별춘향전』에 대하여」, 『동방학지』 148,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9.
- 장우석, 「〈유충렬전〉, 父權 표상의 몰락 서사」, 『우리문학연구』 27, 우리문학회, 2009.
- 정병현, 「〈방한립전〉의 비극성과 타자 인식」, 『고전문학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정준식,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 - 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1, 한국문학회, 2009.
- \_\_\_\_\_, 「〈박만득전〉에 나타난 갈래 교섭 사례」, 『한국문학논총』 53, 한국문학회, 2009.
- 정하영, 「〈춘향전〉 생성과 전승에 있어서 漢文本의 역할」, 『어문연구』 14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 정환국, 「田禹治 전승의 굴절과 반향」, 『민족문학사연구』 41, 민족문학사학회, 2009.
- 차충환, 「〈權龍星傳〉 연구」, 『어문연구』 1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 황은주, 「조선 후기 고소설 연행과 <임경업전>-‘담배가게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 4. 소설사회학(출판 유통) 등 기타

- 강상순, 「고전소설 연구와 정신분석학의 접합, 그 가능성과 지점 및 한계들」, 『민족문학사연구』 39, 민족문학사학회, 2009.
- 권미숙·서인석, 「경북 북부 지역의 고전소설 유통과 ‘글패」, 『고전문학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김재웅, 「호남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의 종류와 향유층에 대한 연구」,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 김진영·차충환, 「필사본 고소설 <안은동전〉 연구」,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 김현화, 「고전소설에 나타난 路祭의 문학적 의미」, 『어문연구』 61, 어문연구학회, 2009.

- 박상현, 「제국 일본과 번역-호소이 하지메의 조선 고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71, 한국일어일문학회, 2009.
- 박재연, 「번역고소설 활용을 통한 사전 편찬 연구」, 『중국학연구』 50, 중국학연구회, 2009.
- 이민희, 「17~18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화폐경제의 사회상」, 『정신문화연구』 1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_\_\_\_\_, 「서적중개상 宋申用 연구」,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 \_\_\_\_\_, 「조선시대 서적유통 및 매매의 문화적 의미」, 『어문논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 이상구, 「고소설에 나타난 성담론과 그 지향」, 『어문논총』 50,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 이창현, 「방각소설 출판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방각소설의 출판과 언어·문화의 표준화」,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 장효현,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그 의의와 한계」,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9.
- 정병현, 「고전산문 연구와 교육의 전망」,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주형예, 「매체와 서사의 연관성으로 본 19세기 대중소설 시장의 성격」,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 5. 저서

- 권순궁 외, 『한국문학과 사회상』, 소명, 2009(김시업 교수 기념 논문집).
- 이민희, 『마지막 서적중개상 송신용 연구』, 보고서, 2009.
- 이영미, 『딱지본 대중소설의 발견』, 민속원, 2009.
- 설중환, 『한국 고소설의 이해』, 집문당, 2009.
- 조재현, 『고전소설의 환상세계』, 월인, 2009.
- 한국고소설학회, 『한국 고소설과 섹슈얼리티』, 보고서, 2009(학회지 발표논문 선집).

## 6. 자료

- 김일렬 외, 『속사씨남정기와 사씨남정기』, 태학사, 2009.

- 김장환 외, 『슈양의사·슈양의사』, 학고방, 2009.
- 박재연, 『화도연』,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9.
- 안민정, 『영춘전』,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9.
- 임치균 외, 『낙성비룡·문장풍류삼대록·징세비태록 현대어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조용호, 『남가록 연구』, 박이정출판사, 2009.
- 『베트남어 번역 홍길동전 Truyện Hồng Cát Đờng』, 인터북스, 2009.

#### 7. 박사학위논문

- 왕매용, 「〈黃夫人傳〉의 형성과 구조」,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상현, 제임스 게일(James Gale)의 한국학 연구와 고전서사의 번역」,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재순, 「〈雲水誌〉의 형성 과정과 작품세계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전이정, 「여성영웅소설연구 - 서사 단위와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허순우, 「〈現夢雙龍記〉 連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8. 석사학위논문

- 김동욱, 「군담소설의 도술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유진, 「〈최고운전〉의 서사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류명옥, 「〈장월용전〉의 개작 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민란옥, 「〈운영전〉 연구-근대성과 비극성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주현, 「〈장인결전〉의 서사구성과 인물형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백지민, 「17세기 전반 한문소설의 지형과 지향 연구-전기소설과 전계소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송정진, 「〈임화정연〉 연구 - 필사본 72권 72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우선희, 「남성혜절 소설의 서사적 특징과 문화적 위상」,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윤기선, 「해외체험형 전란소설에 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윤정안, 「〈장화홍련전〉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상희, 「〈소현성록〉 갱충담의 서사 구성 방식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은영, 「조선후기 한문서사의 성 담론-〈절화기담〉, 〈포의교집〉, 〈북상기〉, 〈백상루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진영, 「관소리계 소설과 話本小說의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차유정, 「〈崔陟傳〉의 소설적 특성 연구-〈홍도이야기〉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최천우, 「〈郭氏傳〉의 異本 양상과 烈行의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한정, 「〈최척전〉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허방, 「〈적벽가〉와 『삼국지연의』 중 〈화용도〉의 대비연구-서사·인물·관점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홍정표, 「고전소설을 활용한 방송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홍길동전〉과 〈쾌도 홍길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오트공바야르, 「〈조웅전〉과 〈장가르〉의 비교연구 - 영웅의 형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